

A

SJ

C

LIVING

IN

JOY



즐겁게! 기쁘게!

2023. 3. 28-6. 25

장소

아트선재센터 더그라운드

관람 시간

오후 12-7시

(일요일 휴관)

참여 작가

박론디, 박보마, 우한나

기획

추스 마르티네스

FHNW 아트 앤 디자인 아카데미

아트 젠더 네이처 학장

협력 큐레이터

조희현

아트선재센터 전시팀장

주최

아트선재센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기쁨’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기쁨이 재미나 행복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언급하는 것이라 여긴다. 기쁨은 기분이 아니라 상황을 뜻할 때가 훨씬 더 많다. 기쁨은 온화한 충족감으로 정의되는 집단적 분위기, 즉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세상에 다가가도록 하는 흔쾌한 마음을 말한다. 자본주의가 종종 행복을 강조하면서 행복과 소비가 상호 의존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기쁨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요구를 더 잘 이해하면서 커지는 정서이다. 고통과 고난은 역사가와 학자들의 글 속에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지만, 기쁨은 그런 식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쁨은 정의하기 어렵고 오해하기는 쉽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분석철학을 배우고 개념적 실천을 열렬히 지지하는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논증적이고 초연하게 작품을 글로 설명하고 제시하는 방식에 관객들이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 실망했다. 내가 받은 교육에 따르면, 그것은 관객의 잘못이고 관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든 시도는 대중에 영합하여 올바른 사고에 필요한 복잡성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나는 큐레이터와 작가의 기쁨은 관객의 기쁨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주류 소비자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글의 어조를 바꾸고 작품의 소통 가능성을 강조하는 여러 에너지를 활성화하자, 관객과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보다 가까이 전시를 보러 올 뿐만 아니라 한 번 본 전시를 다시 찾기도 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새로운 작품을 의뢰할 때는 작가들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흔히들 단체전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집단전시(collective exhibitions)’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된 전시는 어떤 경험과 가치를 또 다른 공동체인 관객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즐겁게! 기쁘게!»가 좋은 예이다. 이 전시는 스위스 작가 하이디 부허(Heidi Bucher)의 작품 세계에 응답하면서 동시대의 젠더 조건과 평등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작업하는 한국 작가 세 명을 소개한다. 나는 박론디, 박보마, 우한나의 작품을 각각 다른 상황에서 접했다. 하지만 각자의 작업을 본 순간, 이들을 한 전시장에 모으면 젠더의 실체를 경험하는 데 예술이 기여하는 방식에 풍성한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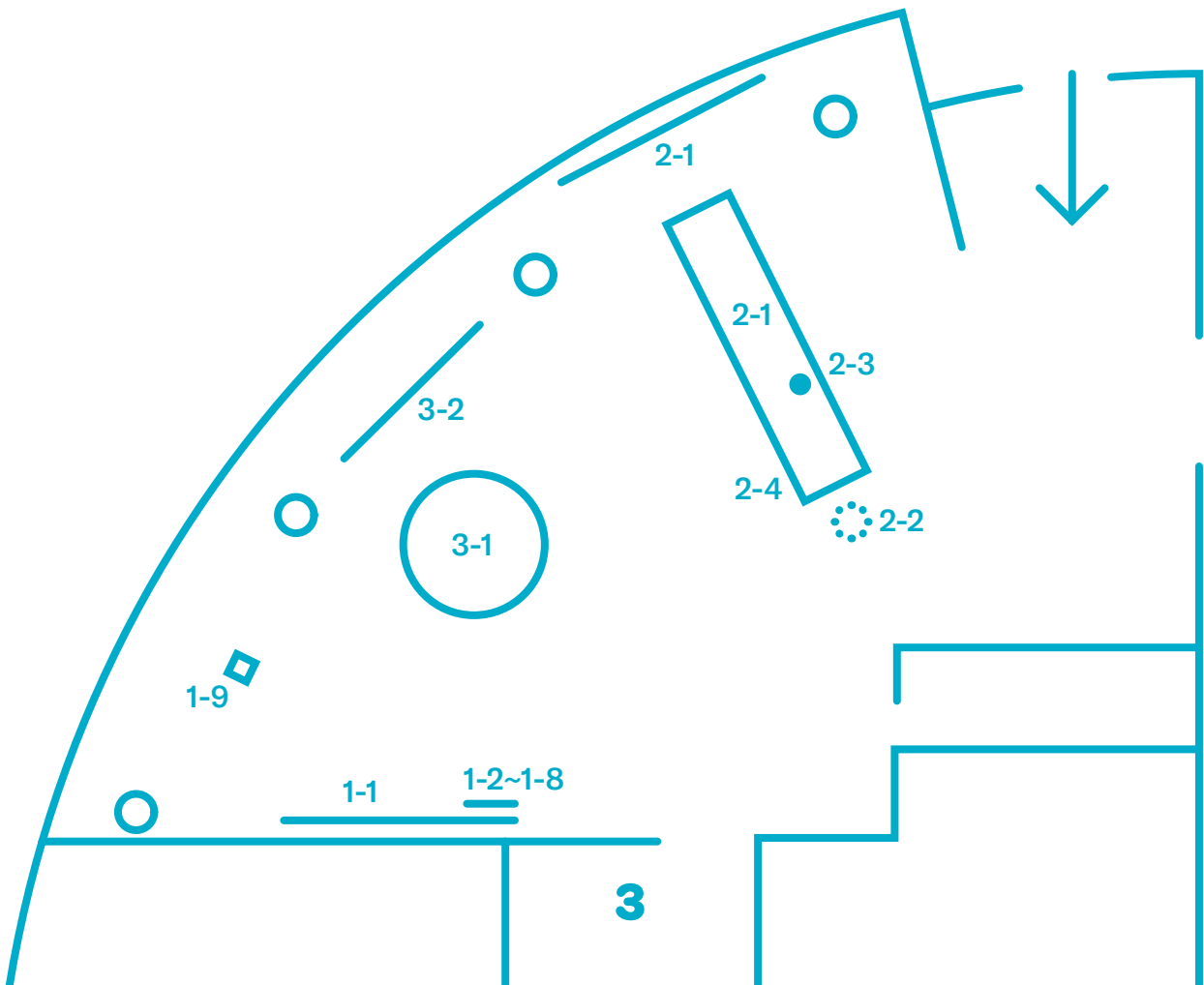
전통, 의례, 기대는 박보마의 새로운 작품에서 핵심이다. 우리는 눈 앞에 결혼식을 보면서도, ‘이 결혼식은 과연 누구의 결혼식일까?’ 질문하게 된다. 박보마의 결혼식은 그 힘을 확장시킨 의식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남성과 여성만의 결혼식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결혼하고 예술가와 같은 집단이 사회와 결혼하고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살기로 결심한 모든 개인들이 결혼하는 것일 수 있다. 우한나의 장기(臟器)도 같은 흐름이다. 우한나가 신체 기관의 형상을 따라 만든 여러 조각은 우리의

지각이 재교육되어야 한다는 사실, 사회적 규범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몸이 지나치게 구속을 받으면서 제한된 존재로만 있고 그렇게만 인식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신체 기관들은 감정처럼 내부에 있어서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부의 장기를 외부로 끄집어내는 것은 세계를 새롭게 감각하는 다른 사회체(social body)를 만들기 위한 초대이다. 박론디의 작업은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의 작업에서 ‘시간’은 항상 중요한 주제이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자녀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간 제약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회화는 도움이 될까? 그렇다. 회화는 도움이 된다. 회화는 형식의 영역에 존재하는데, 이 형식을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 보다 더 인간적이고 우리 자신처럼 되도록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목적은 집단적인 반응과 공감적인 반응이 모두 가능한 사회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예술가, 특히 동시대 작가들의 다양한 방식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다. 공생과 자유는 각 세대가 제시하는 다양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다. 이 전시에서는 ‘기쁨’을 우리 모두의 안녕을 제대로 돌보는 방법으로 제안한다.

글. 추스 마르티네스



1. 박론디

박론디의 이번 신작은 하나의 설치로도, 따로 떼어진 오브제로도 볼 수 있다. 이 작업은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집에 들어와 신체와 가장 가까운 사이의 오브제를 선반 위에 올려 놓고 하루의 끝에 무장해제된 한 개체의 현관을 상징한다. 이 현관의 주인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살아가는 워커홀릭이다. 그를 목적의식 없는 열정맨으로 살아가게끔 지탱하는 가치관과 물질, 태도를 대변하는 시계, 반지, 열쇠고리를 모두 풀어놓은 현관의 주인은 사라지고 없다.

1-1. 박론디

‘나는 지치지 않아. 일이 너무 좋은 걸,’ 쉬익쉬익 숨소리를 내며 그녀는 빛이 어린 눈을 굴렸다. ‘알지? 나 포기 안하는 거?’ KK는 지기가 싫었다. KK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FAKE IT TILL YOU MAKE IT이 더 프로답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KK는 A가 챙겨주는 척 맥여도, 주목받는 일 아니면 안 해도, 자질이 없지만 승진에 눈이 멀어 침을 질질 흘려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다 나눠줘도 어차피 1등’이라 생각하며 견제하지 않았다. 왜 번아웃이 안 올까? 무엇을 위해 연봉을 높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차근차근 스텝을 밟는 걸까? 피곤하지 않나? 나는 광선을 뿜을 것 같은 그녀의 눈이 어찌면 오토 파일럿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다.>
2023, 낙엽송에 과슈, 488 × 180 cm

1-2. 박론디 & 요아킴 지커트

〈슈퍼 슬로우 섀넌〉
2023, 나무, 플라스틱 비즈,
50 × 13 × 25 cm

1-3. 박론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날 본다고 달라지지 않아〉
2023, 암염, 스티커, 실, 비즈, 알루미늄,
16 × 11 × 10 cm

1-4. 박론디

〈조금 안 좋은거 너도 알잖아〉
2023, 도자, 비즈, 알루미늄, 16 × 12 × 3 cm

1-5. 박론디

〈태즈〉
2023, 은, 유리, 2 × 3.5 × 0.7 cm

1-6. 박론디

〈솔리데리티〉
2023, 은, 크리스탈, 3.7 × 0.7 × 0.3 cm

1-7. 박론디

〈에리스리틀〉
2023, 은, 크리스탈, 3.5 × 3.5 × 1.3 cm

1-8. 박론디

〈똥실이방실아〉
2023, 은, 크리스탈, 4 × 1.5 × 0.2 cm

1-9. 박론디

〈반복하는 Y2K〉
2023, 알루미늄, UV 프린팅, 나일론,
7 × 29 × 3 cm

2. 박보마

인간에게 각종 의식은 오랜 시간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결혼식은 어느 오래된 놀이동산에서 반복해 운행해온 놀이기구처럼 변모하였는데, 박보마는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진부한 결혼식'이라도 참석할 때마다 감동하고 눈물이 나는 사실에 주목한다. 박보마의 작업은 통속적이며 물질적인 것과 인간의 유한함이 영속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결혼식의 구성 요소를 '사건', '가짜', '죽은 것', '우연', '느낌'으로 채운다.

2-1. 박보마

〈결혼식의 영혼〉

2023, 혼합 재료(사운드, 향, MDF 위에 도장, 목탄, 연필, 벽 위에 드로잉, 석고, 석고 점토, 버터, 잉크, 머리카락, 페인트, 지점토, 종이, 텍스트, 비즈, 생화, 조화, 조각, 색 스프레이, 유리, 스틸, 구운 컬러플라워, 세라믹, 천, 물 등), 가변크기.

2-2. 박보마

〈한번 연기된 결혼식〉

2023, 스테레오, 24분 8초.

2-3. 박보마

〈아이보리 매니큐어(부케): 물질이 영혼으로 휘발할 때〉

2023, 에센셜 오일, 에탄올, 유리, 섬유 스틱, 알루미늄, 가변크기 (협업: 매터)

2-4. 박보마

〈혹은 시작하지 않은 것〉

2023, MDF 위에 도장, 170 × 30 × 610 cm

3. 우한나

패브릭을 주재료로 삼아 조각과 설치 작업을 이어온 우한나는 이번 전시에서 대형 조각 작업인 〈블리딩7〉(2023)과 〈젓과 꿀-3〉(2023)을 선보인다. 여성의 신체 기관을 모티브로 하여 패브릭 재료의 부드럽고 유연한 물성을 극대화한 이번 작업은 중력에 저항하기 보다는 패브릭 조각에 가해지는 자연의 힘을 온전히 이용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우한나는 여성의 생식기와 유방을 각기 닮은 〈블리딩7〉과 〈젓과 꿀-3〉에서 인간의 신체를 넘어 호접란과 박쥐와 같은 다른 생명체의 외양을 참조하며 생태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들이 위계 없이 동등하게 즐거울 수 있는 자유를 상상한다.

3-1. 우한나

〈블리딩7〉

2023, 패브릭, 솜, 비즈, 와이어,
50 × 400 × 400 cm

3-2. 우한나

〈젓과 꿀-3〉

2023, 패브릭, 솜, 비즈,
340 × 180 × 420 cm

작가 소개

박론디(b.1993)

박론디는 영국 브라이튼대학을 졸업한 후, 다수의 그룹전과 한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텍스타일과 퍼포먼스, 세라믹 등 다양한 매체 안에서 개인의 역사를 사회적 현상으로 증폭시키는 것에 집중한다. 또한 익살스러움, 귀여움, 흥미로움과 같은 정서가 가진 미학적인 힘을 탐구하며 이것과 사회와의 관계성을 욕망 또는 욕구를 매개체로 사용해 네러티브를 풀어간다. 주요 전시로는 개인전 «And I need you more than I want you»(화이트노이즈서울, 2021)와 그룹전 «끝에서 두 번째 세계»(하이트컬렉션, 2022),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대림미술관, 2020) 등이 있다.

박보마(b.1988)

박보마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각을 빛과 물질에 비추어 보는 일을 한다. 이를 위해 분위기(인상, 기분, 순간, 느낌 등)의 물질성, 힘 그리고 그의 반복(복제)을 탐구하며 다양한 매체와 증식적인 아이덴티티를 경유하여 외부적 사건으로 재현, 발화하기를 모색한다. Matter에서 조향사로 일한다. 최근 가상의 회사 «Sophie Etulips Xylang Co.»(2021)의 웹사이트(s-e-x-co.com)와 «Boma Pak: Paintings and Matters 19xx-2022»(YPC SPACE, 2022)를 개인전시로 선보였다. «마이셀리아 코어, 레버카 손, 폴 앤 스티브»(수치, 2022), «Perform

Collection System»(2021), «Girls in Quarantine»(2020), «장식전»(오래된 집, 2020), «Defense: ...»(d/p, 2020), «Shame on You»(두산갤러리 뉴욕, 2017), «실키 네이비 스킨»(인사미술공간, 2016)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우한나(b.1988)

동물의 내장과 신체의 형태를 띤 우한나의 패브릭 조각은 인지하지 못했던 작가 자신의 장기의 '부재'를 인지하며 느낀 결핍과 상실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듯 그의 조각은 부재하는 존재를 대신하는 동시에 상실을 보완하고 소유욕을 해소하게 하며, 나아가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과 다른 것임을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작가는 다른 존재의 신체를 빌어 모든 생명들의 유한한 육체를 초월하고자, 인간을 모든 타자와 구분 지었던 기존의 경계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도모한다. No.9 Cork Street(2023), 아트스페이스 보안(2023), 송은아트큐브(2020), 피에스사루비아(2019)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Summer Love» (송은아트센터, 2022), «조각충동»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2022), «슈퍼 히어로» (인사미술공간, 2020),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2019) 다수의 그룹전과 아트플랜트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